

★ 발의안 22에 찬성하는 주장 ★

문제: 획기적인 이 새 법안은 앱 기반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것을 불법화하도록 위협합니다

Sacramento 정치인들은 최근 California 주민으로 하여금 앱 기반 승차 공유, 음식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독립 계약자로 일할 자유를 앗아가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자적인 설문지에 의하면, 앱 기반 운전자는 4:1 비율로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것을 **대단히 선호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는 다른 일자리를 겸하고 있고, 가정에 대한 의무나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에 유연성이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수입을 필요로 합니다.

앱 기반 운전자의 독립 계약을 금지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독립 계약자로 일할 "운전자의 능력을 없애버리건" 대다수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업무 유연성 또한 사라지며, 이는 고객과 운전자를 빠르게 연결한다고 검증된 주문형 모델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대기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며, 여러 방면에서 해당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중단되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William Hamm, 전 무소속 주 입법 분석가

해결법: 발의안 22에 찬성하면 운전자로 하여금 독립 계약자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새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22에 찬성하세요.

1. 앱 기반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여** 이미 수백만 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California의 일자리를 보존합니다.
2. 기업이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여 앱 기반을 둔 업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 의료 보험용 자금 • 업무상 재해를 위한 의료 및 장애 보장 보험 • 괴롭힘 및 차별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호
3. 지속적인 신원조회 및 안전 지침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치안 보호 확대 추진. • 마약 및 음주 범죄에 대한 무관용 • 운전자 사칭에 대한 형사 처벌.

발의안 22에 찬성하세요. 앱 기반 운전자는 4:1 비율로 독립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운전자 80% 이상은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다른 일자리나 의무를 겸하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지정된 시간에 교대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아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일을 하는 부모.

• 노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불규칙한 시간에 일을 하는 가족 구성원. • 부수입이 필요한 근로 가정, 은퇴자 및 학생.

"저는 장애를 가진 재향군인이며,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갑니다. 저는 발의안 22를 매우 지지합니다. 이 발의안이 의료 진찰 예약과 학업을 피해서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Matthew Emerson, 해군 재향군인이자 음식 배달 운전자

"저는 정직원으로 일하는, 다섯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생활비에 보태 쓰고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가족은 재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Brenda Vela, 어머니이자 공유 차량 운전자

발의안 22에 찬성하면 계속해서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22는 수백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식료품, 의약품, 따뜻한 음식을 집으로 가져다 주는 배달 서비스와 기동성을 개선하고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몰아내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보존합니다. 발의안 22에 찬성하세요. 운전자, 중소기업, 사회 정의 옹호자, 치안 지도자 및 다른 여러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앱 기반 운전자 지지합니다 • 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 • California State NAACP • California Peace Officers' Association • National Hispanic Council on Aging • California Senior Advocates League • 기타 100곳 이상의 기관.

[www.VoteYesProp22.com](http://www.VoteYesProp22.com)

**BETTY JO TOCCOLI**, 회장

California Small Business Association

**JIM PYATT**, 회장

Independent Drivers Alliance of California

**MINNIE HADLEY-HEMPSTEAD**, 회장

NAACP Los Angeles

★ 발의안 22의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

제 이름은 Jerome Gage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Lyft 운전자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 일이 가진 유연성을 좋아합니다. COVID-19가 나타나기 전에, 저는 주당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이제 그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California법 이후로 Uber나 Lyft가 저를 직원으로 대하기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저는 최저임금이나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유급 병가를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업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발의안 22에 반대하십시오.

회사는 제가 "꼭 필요한" 직원이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가 성행한 이후 그들은 실업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의안 22를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5,000,000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또 일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 말합니다.

저 같은 운전자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돈을 개인보호장비 (PPE)나 더 많은 위생 시설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료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Uber와 Lyft는 제가 "독립"을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독립을 줄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Uber와 Lyft 운전자의 70%는 저 같이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지만 발의안 22가 시행되면 저희의 급여는 더 적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공평한니까?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회사는 발의안 22처럼,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률선택하거나, 직접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50,000명 이상의 운전자를 대표하는 운전자 그룹과 함께 하십시오. 발의안 22에 반대 투표하세요.

**JEROME GAGE**, Lyft 운전자

이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그 정확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 발의안 22에 반대하는 주장 ★

Uber와 Lyft, DoorDash는 11월 투표용지에 발의안 22를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의안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필요한 유권자의  
서명을 모으기 위해 정치 전문가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발의안은 유급 병가나 근로자 보상 또는 실업수당처럼 운전자가  
직장에서 누리는 기본 권리와 보호막을 합법적으로 부정하는 특별  
면제 혜택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22는 Uber, Lyft, DoorDash 및 다른 앱 기반 배달 및 교통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익입니다. 이러한 회사만  
특별 면제 혜택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현행법은 Uber, Lyft와 DoorDash가 다른 모든 California  
기업처럼 운전자에게 최저임금, 건강보험 및 유급 병가, 실업 보험  
및 근로자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최근 법무장관은 법을 위반하고 수년 간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회피한 사유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있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의안 22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발의안 22에 왜 반대 투표를 해야 할까요?

• 발의안 22는 기본 직장 혜택을 제거하고 이것을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련된 새로운 낮은 "수입 보장"과 "의료 보조금"  
지급으로 대체하는 특별 면제를 제공합니다.

• 발의안 22에는 운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기만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Uber와 Lyft  
는 이미 신원조회를 수행해야 하며, 이 새로운 조항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 Uber와 Lyft가 고객 및 운전자의 성희롱 신고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폐기합니다.

• 결론: 발의안 22는 모두 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귀하가 앱을  
사용할 때 만나는 운전자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이러한 기업이 운전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The New York Times* 편집국은 이와 같은 회사들이 "전염병 성행  
중 충분한 양의 마스크 제공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와 같은

지속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높아진 음식 배달  
수요로 인해 더 많아진 주문을 처리하도록 일하는 이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라는 기사를 최근 작성했습니다.

78%가 유색인종인 이 운전자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염병 성행 중에도 California를 도왔으며, 더 좋은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앱 기반 운전자들, 많은 라틴계, 흑인 또는 다른 유색인종  
지역사회에서 온 사람들은 병가와 건강보험, 실업수당, 업무 일정  
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Uber, Lyft와 DoorDash가 쟁점을 흐리지 못하게  
하세요. 이들은 이것이 "파트 타임" 운전자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자의 유연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실, University of California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지 않으며, Uber와 Lyft  
운전자의 70%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만 믿지 마십시오.

[transform.ucsc.edu/on-demand-and-on-the-edge](http://transform.ucsc.edu/on-demand-and-on-the-edge)에서 직접  
읽어보세요.

발의안 22는 Uber, Lyft와 DoorDash 기업이 작성한 것이지  
그들의 운전자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반대 투표를  
촉구하기 위해 수만명의 운전자가 저희와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Uber, Lyft와 DoorDash가 자신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발의안 22에 반대 투표하세요.

[NOonCAProp22.com](http://NOonCAProp22.com)

**ALVARO BOLAINIZ**, Uber 운전자

**NOURBESE FLINT**, 상임이사

Black Women for Wellness Action Project

**ART PULASKI**, 재무이사

California Labor Federation

★ 발의안 22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앱 기반 운전자의 대다수가 발의안 22를 지지합니다

독자적인 설문지에 따르면 앱 기반 운전자는 4:1 비율로 독립  
계약자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80%의 운전자가 주당 20시간  
미만 일하며, 대부분의 운전자는 주당 10시간 미만 일합니다.

아이들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해야 하는 부모들, 부수입이  
필요한 사람들, 아프거나 나이가 든 사랑하는 이를 돌보는 가족들과  
수업 일정에 맞춰 돈을 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발의안 22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인과 특별 이익 단체는 그들은  
운전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안다고 비꼬아 말합니다. 그들은 앱  
기반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것을 불법화하도록 위협하는  
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운전자들이 발의안 22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유연한  
소득 창출 기회를 보호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보존합니다.

발의안 22 앱에 기반을 둔 일자리 및 서비스 보존

발의안 22는 독립 계약자로 일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선택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22는 수백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음식과  
식료품을 집으로 가져다 주는 배달 서비스와 기동성을 개선하고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몰아내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보존합니다.

발의안 22 기업이 운전자에게 역사적인 새 혜택 제공

- 시간당 최소 \$21 수입 보장.
- 주당 15시간의 건강보험 혜택.
- 업무상 재해를 위한 보험.
- 차별과 희롱에 대한 보호 강화.

발의안 22 엄격한 소비자 보호 추가.

발의안 22 근무하는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원 조회 제공 • 마약  
및 음주 범죄에 대한 무관용 • 운전자 사칭 행위를 범죄로 규정.

앱 기반 운전자, 사회 정의, 중소기업 및 치안 지도자와 함께  
하십시오. 발의안 22에 찬성 투표하세요!

[VoteYesProp22.com](http://VoteYesProp22.com)

**JIM PYATT**, 회장

Independent Drivers Alliance of California

**FREDDYE DAVIS**, 회장

Hayward South Alameda County NAACP

**JULIAN CANETE**, 회장

California Hispanic Chambers of Commerce